

신종플루 대응체계 '심각' 격상... 당황스런 광주·전남

광주시, 정부서 받은건 1,600만원 뿐

〈예방접종 종사자 인건비〉

섬·산간벽지 환자 발생때 신속무책 軍인력 지원 예방접종은 빨라질 듯

정부가 3일 신종인플루엔자의 전염병 위기단계계를 최고단계로 격상하고 광주시, 전남도 등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신종플루에 대응토록 했지만, 지역 간 역량과 환자발생 현황에 따른 대처 수준에 격차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3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국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단체장을 본부장으로서 한 지역별 대책본부가 4일부터 상시 가동된다.

이에따라 예방접종에 군인력의 지원을 받게 돼 당초 오는 16일부터 약 6주에 걸쳐 진행하려던 초중고생 예방접종 기간이 4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급임원인 초중고생의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 감염자수와 중증환자수도 줄어들게 된다.

지역 의료기관의 상황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도의 책임이 커진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이 앞으로 신종플루 대응 역량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지방의 경우에 미리 준비를 철저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 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환자 발생 현황에 따라라도 지역 간 대응 수준에 편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전남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업무가 새로 추가된 것은

없지만 산간벽지나 섬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타·시도에 비해 대응수준이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4일부터는 보건한방과에서 주관해 온 기존 신종플루 대책본부를 확대·개편, 사회복지 분야와 방재 등의 관련 부서가 포함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예방접종 인력수급을 우려하

고 있다. 관내학교 304곳에 대해 6주내 예방접종 완료목표로 현재 의료인력 56명을 확보했지만, 제때 의료 인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의료인력 확보비용으로 지원한 1천600만원으로 56명의 인력을 확충했지만, 추가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다. 정부가 군의료 인력 지원계획을 짜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자원봉사 인력을 모집한다는 복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예방접종을 위해 군 의료 인력을 편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력보강이 제때 이뤄질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시는 또 정부가 시·도에 신종플루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지워놓고도 백신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대응이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광주·전남 예방접종 인력 26만명의 10%에 달하는 백신 2만6천개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도의 책임을 강화하면 지역간 격차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 효과가 점차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착공 국립광주과학관 기공식이 3일 광주시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열린 가운데 인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박광대 광주시장 등 참석 인사들이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종플루 '심각' 단계 국민행동 수칙

정부는 신종플루 위기단계계를 격상하면서도 국민이 신종플루로 인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신종플루 치명률이 0.03% (총 사망사례 42건)에 불과해 계절인플루엔자 수준인 점 ▲국내에 항바이러스제가 충분히 확보된 점 ▲세계에서 8번째로 백신을 개발해 현재 접종이 이뤄지는 점 ▲우수의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전국의 방역요원들이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가 주중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민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부 사항으로는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

의심증상때 동네병원서 진단·처방, 동네약국서 투약

또는 등교하지 말고 바로 동네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동네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하에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 약국에서 투약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진료받은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환자는 외부 출입을 하지 말고 자택에서 항바이러스제를 5일간 복용하면서 1주일간 자가 격리할 것과 동네 의료기관에서 중증 또는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신종플루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치료접병원으로 옮기되 중환자실이 필요할 때는 응급의료 정보센터(☎11339)를 통해 문의하라고 요청했다.

신종플루 예방차원에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건강 생활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고위험군이나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삼가며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꼭 사용하라고 덧붙였다.

각급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립된 업무지속계획(BCP)을 재점검하고 실제 가동토록 하며 특히 가족 중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돌보기 위해 결근하는 경우에는 적극 공가로 인정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쌀값 하락 부추길 생색내기용”

도의회, 전남도 쌀 수급 안정책 반발
의원 2명 단식농성...농민단체도 동조

전남도의 쌀 수급 안정 종합대책이 '역풍'을 맞고 있다.

전남도가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비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과 비 매입자금 특별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비 매입 방식 등을 놓고 농민단체와 전남도의회에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 민주당당 소속 고송자(비례대표)·정우태(장흥)의원은 3일 전남도청 1층 로비에서 전남도에 재고 쌀 직접 구매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두 의원은 "전남도가 발표한 쌀 수급안정대책이 미국종합처리장(RPC)의 재고미만 늘리는 악순환을 불러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쌀 매입 지원자금 400억 원도 농협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면 되는데 전남도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생색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접구매와 격리만이 쌀값 안정대책으로 의미가 있으며,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재고미 직접 매입 후 즉각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전남도가 이러한 요구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등 농민단체도 두 의원의 단식농성을 지지하고, 전남도가 두 의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식농성 합류 등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박준영 지사는 지난 2일 전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쌀값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전남도는 예산의 90%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쌀 직접 구매를 위한 예산 마련 능력도 쌀을 구매해 저장할 시설도 없다"면서 전남도가 재고미를 자체 구매해 시장 격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비 직접 구매를 놓고 전남도와 농민단체,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민주당도 의원의 단식농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쌀값 하락을 막도록 농민들을 위한 비 경영안정자금으로 500억 원을 확보할 것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의회는 또 "현재 남아있는 2008년산 재고 쌀 전량을 조속히 시장격리 조치해 쌀값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 선정작업 착수

오늘 건설추진단 세미나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선정 작업이 본격 착수된다.

광주시는 4일 도시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에서 도시철도 건설추진단 세미나를 갖고 '경전철 차량시스템 기술'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이 자리는 지상 고가 경량철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선정을 위해 각 차량들의 장단점을 분석, 점검하는 자리다.

이날 현대 로템사는 철재차량시스템과 자기부상열차의 특징을 소개하고 (주)로원은 모노레일 시스템, 봄바르디아사는 LIM 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건설추진단은 각 사의 제품 소개가 끝난 후 자유토론·질의 시간을 통해 각 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해 최종 차량 선정작업 판단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도시철도에 채택되거나 선보일 제품들이 모두 감성과 약점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도시철도 2호선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찾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차량 선정작업이 초기 단계이니 만큼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적의 시스템을 찾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LIM 시스템



철재차량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비정상적인 수면 개선과 집중력 향상, 두통 완화, 스트레스 해소, 만성 질환 예방, 5분만에 건강을 되찾으세요!
5분만에 건강을 되찾으세요! HeartPlus ACQ-1000E
5분만에 건강을 되찾으세요!



광주비밀기술원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로써
편의성과 함께 사용 시 효능이 매우 높음

